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4. Vol. 123 No. 4 pp. 61~84
https://doi.org/10.33949/tws.2024.123.4.003

부모와 학교의 친인권적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고, 인권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중고등학생 데이터를 분석했다. 독립변수는 인권친화적 양육태도와 학교운영이고, 매개변수는 학생인권의식이며, 종속변수는 차별행동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 등이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적용했는데,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의 학생존중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차별에 대해 유의미한 억제효과가 있었고, 장애인 인권존중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 이러한 구조모형에 대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이 인권의식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의식이 차별행위에 대해 가지는 억제효과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역시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여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 관계적 맥락에서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부모 양육태도, 학교운영, 인권의식, 여자 청소년, 차별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한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중·고등학생)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byong3@kaay.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인지적 능력이 성숙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도덕적 추론과 비판적 사고가 확장된다(Lerner & Jovanovic, 2016). Kohlberg와 Hersh(1977)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여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보편적 윤리와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 또 가정과 학교에 머물던 아동은 청소년기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과 단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Aneshensel & Sucoff, 1996).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기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자기 과장(self-exaggeration)과 영웅심리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래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여 왕따, 금전 갈취 등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기도 한다(한주희·조인주, 2022).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에는 가정, 학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중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교육이 미흡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유문무, 2013; Greene, 2006).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인권에 관해 건전한 교육과 관점을 습득한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양영미·김진석, 2023; Sherrod, 2008).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이 미흡하고 경쟁에서의 승리만 강조한다면 청소년은 약자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형성한다(정용교, 2015; Fields & McNamara, 2003).

특히 여자 청소년은 가정, 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현장 등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김재엽·황성결, 2017; Ybarra & Mitchell, 2013). 가정과 학교에서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은 여자 청소년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형성하며, 부당한 외부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자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실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현안나, 2016; Buller & Schulte, 2018).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현안나(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인권의식에 있어 남자 청소년보다 민감성은 높으나,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나 학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인권교육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Gervais, 2010; Kennedy & Kui-Foon, 2009).

여자 청소년의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운영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신·박가나, 2014; 박봉규, 2011; 현안나, 2016; Velez, 2019). 다만, 부모와 학교의 인권 친화적 태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 부모와 학교의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인권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하여 성차를 규명한 연구도 부족하다. 전예빈과 김순규(2022)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인권의식이 행동에 주는 영향에 관한 성별 차이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Fivush와 Zaman(2014)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성별차이를 고찰하고, 이러한 인권의식이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태도가 청소년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하고,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인권 친화적 태도 형성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부모와 학교의 인권친화적 태도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장애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러한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권(human rights)이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보편적인 권리이다(Orend, 2002). 또 인권의식은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양영미·김진석, 2023; Butler, 2008).

청소년기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에 해당하는데, 자유,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습득하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다(윤황, 2022; Khun, 1979). 또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이 발달하여 사회적 문제와 정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한다(Malti, Galarneau, & Peplak, 2021). 청소년은 상황을 판단할 때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부모와 학교의 교육은 여전히 그들이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판단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이다(김자영, 2012; Otto & Atkinson, 1997). 김자영(2012)은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 친화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권의식이 더 높고, 타인의 권리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실문화도 청소년의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교사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을 정할 때도 학생의 동의를 받으며, 정해진 규칙을 솔선하여 준수할 때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Carter & Osler, 2000).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별, 종교, 인종, 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참여를 존중하고, 훈육에서도 인권을 존중한다(유성상·이규빈, 2023).

요약하면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신념과 감수성을 의미하고, 발달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와 교사의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와 교육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영향이 실제 청소년의 인권친화적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인권의식의 성차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에 대해 민감하고, 인권의식 형성에 부모와 학교 교육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eung & Lee, 2010; Osler & Starkey, 2005). 여학생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전예빈·김순규, 2022).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의 인권 친화적 분위기와 관행, 사회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유성상·이규빈, 2023; 현안나, 2016; Torney-Purta, Wilkenfeld & Barber, 2008). 유성상과 이규빈(2023)이 수

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인권교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나(2016)가 남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존중과 학교의 친인권적인 방침이 인권의식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Torney-Purta, Wilkenfeld와 Barber(2008)가 세계 27개 국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여학생의 인권의식이 더 높고 인권교육의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났다. 또 김경숙·김한결·선우현(2022)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고, 인권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자들은 기존의 인권의식이나 실천의 관점이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Tasioulas, 2012). 따라서 단순한 성차의 비교보다는 상황과 맥락을 살펴서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사회적 소수 등 약자의 인권 보호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Ackerly & True, 201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위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인권친화적 방침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직접 효과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매개로 장애인 인권존중과 인권침해 행위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또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끼치는 영향에는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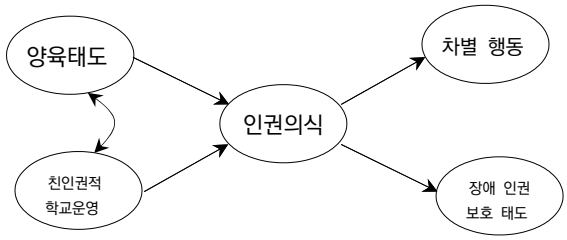
2-1. 학교운영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끼치는 영향에는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차별적 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1.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차별적 행동에 주는 부적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장애인 인권 보호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1.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장애인 인권 보호태도에 주는 영향에는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중·고등학생 데이터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데이터는 연구자가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신청하여 받았는데, 조사는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확인하고, 정책발전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22년 조사에는 총 8,854명의 응답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은 6,130명이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적 변인(N=6,130)

성별		학교급		남녀 공학 여부		거주 지역	
남	3,093(50.5%)	중	2,923(47.7%)	공학	4,242(69.2%)	수도권	2,799(45.7%)
여	3,037(49.5%)	고	3,207(52.3%)	별학	1,888(30.8%)	지방	3,331(54.3%)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은 3,093명(50.5%)으로 여자 청소년 3,037명(49.5%)보다 약간 많았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3,207명(52.3%)으로 다수였고, 남녀 공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4,242명(69.2%)으로 다수였다. 지역으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331명(54.3%)으로 더 많았다.

3.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잠재변수와 20개의 관찰변수를 분석하였다. 각 잠재변수의 하위 관찰변수와 문항, 내용, 측정수준, 신뢰도 정보는 〈표 2〉에 제시했다.

〈표 2〉 측정변수의 내용

구분	잠재변수	관찰변수	문항 내용	신뢰도(α)
독립변수	양육태도	4문항	의견 청취, 진학 존중, 진로 존중, 학습 존중	.85
	학교운영	4문항	규칙에 학생의견 반영, 개인정보 공개(역코딩), 징계관련 신상공개(역코딩), 성적공개(역코딩)	.82
매개변수	인권의식	4문항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성평등, 인종평등	.80
종속변수	차별행동	4문항	성차별, 성적차별, 연령차별, 외모차별	.81
	장애인권	4문항	장애 이해, 장애인 친구, 장애인 학습, 장애인 교제	.86

첫 번째 독립변수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4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학, 진로, 학습권을 존중하는 양육방식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네 개의 관찰변수는

단일 요인에 할당(factor loading)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학교의 인권 친화적 운영은 4개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규칙을 제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개인배경 정보, 성적, 징계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훈육 방침(역채점), 학생 존중 등이다. 이 중 동의 없는 공개에 해당하는 세 개 문항은 역채점으로 측정했다. 네 개 문항은 단일 요인에 할당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인권의식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현의 자유, 경제수준에 따른 차별 반대, 성평등, 인종평등에 관한 태도이다. 네 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에 할당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차별행동 경험으로 하위문항의 내용은 성별, 학교의 성적, 연령, 외모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을 차별하는 성향이다. 네 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에 할당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로서 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동의, 장애를 가진 급우를 수용하는 태도, 장애인 학습권 동의, 장애가 있는 급우와 교류하는 태도 등이다. 네 개의 문항은 단일 요인에 할당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먼저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이어 상관분석을 실시했는데, 이를 위해 SPSS 20.0을 사용했다. 이어서 가설 1, 2, 3, 4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 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했고, 가설 1-1, 2-1, 3-1, 4-1을 검증하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한 이후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적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서는 AMOS 21.0을 사용했는데, 결측치를 고려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측정모형 분석(measurement modeling)을 실시하고 이어서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modeling)을 실시했다. 모형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χ^2/df는 5.0 이하, RMSEA는 .06이하를 허용할 만한 모형으로 판단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는 .90이상이면 허용할 수 있는 적합도로 판단했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전체 학생의 응답결과에 따른 20개 관찰변수의 상관계수 행렬과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양육태도의 하위 관찰변수는 적률상관계수(pearson *r*) .53~.69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의 친인권적 운영의 하위 관찰변수도 .32~.60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인권의식의 하위 관찰변수는 .47~.62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차별행동의 하위 관찰변수는 .45~.53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른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장애인 인권의 하위 관찰변수는 .49~.60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전체 학생의 관찰변수 상관계수 행렬(N=6,1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00																			
2	.56	1.00																		
3	.53	.69	1.00																	
4	.56	.57	.57	1.00																
5	.18	.14	.12	.11	1.00															
6	.07	.08	.09	.07	.60	1.00														
7	.09	.10	.09	.09	.46	.44	1.00													
8	.07	.07	.06	.05	.32	.41	.40	1.00												
9	.14	.16	.15	.13	.39	.45	.43	.44	1.00											
10	.12	.15	.14	.13	.09	.18	.17	.16	.58	1.00										
11	.12	.14	.12	.11	.11	.16	.14	.16	.50	.62	1.00									
12	.13	.12	.11	.10	.13	.15	.15	.17	.47	.54	.57	1.00								
13	-.05	-.02	-.02	-.04	-.06	-.08	-.03	-.05	-.02	-.02	-.10	-.04	1.00							
14	-.05	-.03	-.04	-.05	-.06	-.07	-.05	-.07	-.04	-.05	-.09	-.08	.47	1.00						
16	-.04	-.02	-.03	-.05	-.07	-.06	-.04	-.07	-.02	-.01	-.08	-.04	.51	.45	.53	1.00				
17	.13	.12	.11	.10	.13	.15	.15	.17	.17	-.14	-.17	-.09	-.11	-.09	-.10	-.09	1.00			
18	.12	.14	.12	.11	.11	.16	.14	.16	.11	-.12	-.11	-.07	-.12	-.07	-.11	-.12	.54	1.00		
19	.13	.12	.11	.10	.13	.15	.15	.17	.16	-.18	-.12	-.15	-.15	-.10	-.13	-.14	.56	.49	1.00	
20	.13	.12	.11	.10	.13	.15	.15	.17	.11	.12	-.11	-.14	-.13	-.15	-.11	-.16	.60	.54	.52	1.00
M	3.35	3.51	4.74	4.42	2.84	3.51	3.30	4.91	2.02	3.18	3.04	3.52	1.11	1.15	1.13	1.16	3.62	3.39	3.41	3.18
SD	.68	.64	.65	1.08	.75	.72	.73	.48	.79	.68	.70	.60	.45	.52	.48	.56	.56	.69	.69	.79

변수명: 1=양육태도1, 2=양육태도2, 3=양육태도3, 4=양육태도4, 5=학교운영1, 6=학교운영2, 7=학교운영3, 8=학교운영4, 9=인권의식1, 10=인권의식2, 11=인권의식3, 12=인권의식4, 13=차별행동1, 14=차별행동2, 15=차별행동3, 16=차별행동4, 17=장애인권1, 18=장애인권2, 19=장애인권3, 20=장애인권4

본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때문에 중요 변수들의 남녀 청소년 집단 간 기술통계를 〈표 4〉에 제시했다. 인권의식은 여학생 집단(M=2.91, SD=.34)이 남학생 집단(M=2.79, SD=.43)보다 약간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했다. 차별행동은 남학생 집단(M=1.14, SD=.42)이 여학생 집단(M=1.12, SD=.36)보다 약간 높았으나 역시 차이는 매우 약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 집단(M=3.47, SD=.52)이 남학생 집단(M=3.32, SD=.62) 보다 약간 높았다.

〈표 4〉 주요 변수의 남녀 집단별 기술통계(N=6,130)

구분	인권의식		차별 행동		장애인 인권의식	
	M	SD	M	SD	M	SD
남자	2.79	.43	1.14	.42	3.32	.62
여자	2.91	.34	1.12	.36	3.47	.52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서 5개 잠재변수와 20개의 하위 관찰변수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 분석(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했고, 경로모수는 〈표 6〉에 제시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잠재변수와 20개의 하위 관찰변수 간의 인과관계, 5개 잠재변수 간의 공변량을 설정한 측정모형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χ^2/df=3.44, $RMSEA$=.038)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CFI=.97, NFI=.97, TLI=.96)도 우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측정모형은 데이터의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1).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RMSEA	CFI	NFI	TLI
550.59	160	3.44	.038	.97	.97	.96

〈표 6〉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태도1	.69		
	양육태도2	.82	.02	54.50***
	양육태도3	.81	.02	53.88***
	양육태도4	.72	.02	49.13***
친 인권적 학교운영	학교운영1	.15		
	학교운영2	.66	.44	9.50***
	학교운영3	.63	.46	9.48***
	학교운영4	.64	.47	9.49***
인권의식	인권의식1	.68		
	인권의식2	.80	.02	51.26***
	인권의식3	.77	.02	50.38***
	인권의식4	.71	.02	47.28***
인권침해 행동	인권침해1	.67		
	인권침해2	.74	.03	45.06***
	인권침해3	.72	.03	44.28***
	인권침해4	.72	.03	44.38***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	장애인권1	.63		
	장애인권2	.89	.03	54.77***
	장애인권3	.90	.03	54.88***
	장애인권4	.74	.03	48.35***

***p<.0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수가 하위 관찰변수에 대해 가지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모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측정모형의 구인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1) 기저모형(Baseline Model)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모형 비교를 위해 구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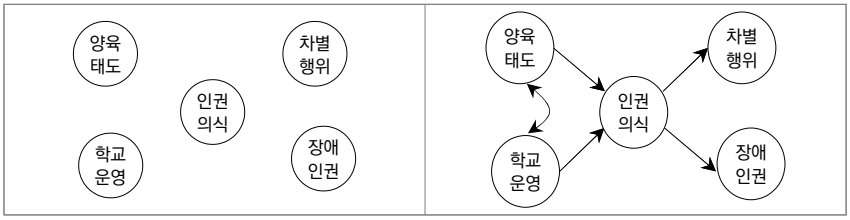
수를 통제한 영모형(null model)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영모형은 외생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운영이 매개변수인 인권의식, 내생 종속변수인 차별행동과 장애인권에 이르는 구조모수의 추정을 통제했다. 영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7〉에 제시했다.

〈표 7〉 영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RMSEA	CFI	NFI	TLI
1613.76	170	9.49	.06	.92	.92	.90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변수 간의 구조모수를 통제한 영모형의 절대적 적합도(χ^2/df=9.49, *RMSEA*=.06)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대적 적합도 지수(*CFI*=.92, *NFI*=.92, *TLI*=.90)는 허용할만한 수준이었다.

2) 구조모형 분석



[그림 2] 영모형과 구조모형

연구가설 1, 2, 3, 4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2]에는 각 연구가설을 나타낸 기저모형과 구조모형을 제시했다. 또 〈표 8〉에는 영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했고, 또한 영모형이 구조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므로 모형 적합도 비교를 위한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 결과를 제시했다.

〈표 8〉 각 모형의 적합도와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 결과

모형	χ^2	df	χ^2/df	RMSEA	CFI	NFI	TLI
영모형	1613.76	170	9.49	.06	.92	.92	.90
구조모형	702.41	165	4.25	.03	.97	.96	.96
Δ	911.35	5	5.24	.03	.05	.04	.06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적합도 지수(χ^2=702.41, df=165, χ^2/df=4.25, $RMSEA$=.03)는 허용할만한 수준이었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우수했다(CFI=.97, NFI=.96, TLI=.96). 영모형이 구조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조모형은 영모형에 비해서 자유도가 5단위 감소하지만,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 =911.35, Δdf=5, p<.001). 다른 적합도 지수도 크게 개선했다($\Delta RMSEA$= .03, ΔCFI=.05, ΔNFI=.04, ΔTLI= .06). 〈표 9〉에는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구조모형 모수추정치

경 로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양육태도	→	인권의식	.18	.01	12.08***
학교운영	→	인권의식	.31	.14	8.28***
인권의식	→	차별 행위	-.12	.01	-7.63***
인권의식	→	장애인권 태도	.49	.02	28.74***

***p<.001

〈표 9〉에는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부모의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γ=.18, CR=12.08, p<.001) 연구가설 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인권친화적인 학교운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효과가 있었고(γ =.31, CR=8.28, p<.001), 연구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효과가 있었고(γ=-.12, CR=-7.63, p<.001), 연구가설 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효과가 있었고(γ=.49, CR=28.74, p<.001), 연구가설 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가설 1-1, 2-1, 3-1, 4-1을 검증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해 먼저 경로계수의 방향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검증하고, 이어서 잠재변수와 관찰변수의 경로계

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검증했는데, 본 연구의 관심은 구조모수가 남, 여 청소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특히 구조 동일성 모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가설이 통계적으로 지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표 10〉에는 남녀 청소년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를 제시했다.

〈표 10〉 남녀 청소년 집단의 형태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남자	2002.45	395	.03	.95	.95	.94
여자	2018.90	395	.03	.96	.96	.95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청소년 집단이 잠재변수와 관찰변수의 관계,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동일하게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남자 집단(χ^2=2002.45, *df*=395, *RMSEA*=.03, *CFI*=.95, *NFI*=.96, *TLI*=.96)과 여자집단(χ^2=2018.90, *df*=395, *RMSEA*=.03, *CFI*=.96, *NFI*=.96, *TLI*=.95) 모두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형태 동일성을 확인했다.

이어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녀 청소년 집단의 각 모형의 모수 추정을 자유롭게 하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unconstrained model)을 ①기저모형,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②측정동일성모형,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한 ③구조동일성모형을 구성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했다.

〈표 11〉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Delta\chi^2$	Δdf	p
①	2002.45	330	.020	.964	.956	.953			
②	2071.65	345	.031	.961	.954	.953	69.2	15	.000
③	2523.80	369	.042	.952	.944	.945	521.35	39	.000

〈표 11〉에 제시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측정모수 및 구조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①자유추정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했다. ②측정동일성 모형이 자유추정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두 모형에 대해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hierarchical chi-square test)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유추정모형은 측정 동일성 모형에 비해서 자유도가 15단위 감소하지만, 카이자승 값은 69.2만큼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69.2, Δdf=15, p<.001). 또 자유추정모형은 ③구조동일성 모형에 비해서는 자유도가 39단위 감소하지만 카이자승 값은 521.35만큼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521.35, Δdf=39, p<.001).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을 통해 남녀 청소년 집단 모형의 측정모수와 구조모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기에 본 연구의 관심인 구조모수의 값을 비교하여 〈표 12〉에 제시했다. 남녀 청소년의 구조모수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부모의 인권친화적 양육태도가 인권의식에 주는 효과는 여학생 집단(β=.21, p<.001)이 남학생 집단(β=.17, p<.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이 인권의식에 주는 직접효과는 남학생 집단(β=.32, p<.001)이 여학생 집단(β=.27, p<.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차별행위에 주는 예방적 효과도 남학생 집단(β=-.13, p<.001)에서 여학생 집단(β=-.10, p<.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인권의식이 장애인 인권에 주는 태도에는 남학생 집단(β=.51, p<.001)이 여학생 집단(β=.42, p<.0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연구가설 1-1, 2-1, 3-1, 4-1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12〉 구조모형 모수추정치

경 로			남학생		여학생	
			β	CR	β	CR
양육태도	→	인권의식	.17	8.04***	.21	9.24***
학교운영	→	인권의식	.32	11.98***	.27	10.24***
인권의식	→	차별 행위	-.13	-7.63***	-.10	-4.50***
인권의식	→	장애인권 태도	.51	28.74***	.42	19.03***

***p<.001

V.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인권친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둘째, 부모의 인권친화적 양육태도가 인권의식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다. 셋째,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이 청소년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은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다. 다섯째, 인권의식은 청소년의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예방적 효과가 있다. 여섯째, 인권의식이 차별행위에 대해 주는 예방적 효과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다. 일곱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덟째, 인권의식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다.

이러한 결론이 여자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주는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인권친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영신·박가나, 2014; 박봉규, 2011; Velez, 2019).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에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태도는 민주적 가치를 체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Grusec & Goodnow, 1994; Knafo & Schwartz,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 집단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높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되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가치를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자 청소년일수록 부모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통해 양육태도와 가치를 전수받고, 인권의식을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Hoge, Petrillo & Smith, 1982).

둘째, 학교의 인권친화적 학교운영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은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었다. 이는 현안나(2016)가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후 보고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인데, 현안나의 연

구에서 학교운영은 남학생의 인권의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여학생의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민주시민적 자질을 배양하는 공간으로서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와 학교 당국이 학생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은 학교의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행정이 인권의식 형성에 주는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여학생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여진(2020)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권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지만 교육내용이 학습되었을 때 인권의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교육의 실제적 과정과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학생의 인권친화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여학생의 경우 정의감과 인권의식을 개념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맥락에 기초하여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때 인권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Jepsen & Rodwell, 2010).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타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예방적 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예방효과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의식은 자신과 타인의 천부적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양영미·김진석, 2023; 이채식, 2016; Emmert, 2011). 본 연구에서 여학생 역시 인권의식이 차별에 주는 억제효과는 유의미했지만, 남학생 집단보다 그 영향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의식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태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차별에 대한 억제효과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소담·신소라·엄유진, 2023; Gupta, 2011). 또 인권의식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집단에서 여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권회연(2015)이 보고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권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병행될 때 인권의식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주는 효과가 보완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인권교육이나 인권의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효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구체적, 관계적 맥락에서 돌봄의 인권의식이 발휘된다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Crean, 2018; Donleavy,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구체적, 상황적, 관계적 맥락을 제시하고, 행위의 대상에게 공감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여자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가정,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권위자들은 여학생의 정의감, 도덕적 판단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자의 감정,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인권의식 형성에 주는 영향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 여학생의 경우 인권의식이 차별행위에 주는 억제효과가 남학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도덕성 추론은 돌봄의 정의(justice)라는 관점에서 개인적, 관계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남학생의 경우 이론적, 제도적, 의무론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접근하여 인권의식이 차별에 주는 억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돌봄, 공감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Tasioulas, 2012).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정, 학교의 요인과 인권의식이 가지는 차별에 대한 예방효과를 규명했다. 또 인권의식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했다. 하지만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변수, 구체적 사례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변수에 추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투고일 : 2024년 10월 11일 ■ 심사일 : 2024년 12월 11일 ■ 수정일 : 2024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19일

참고문헌

권회연(2015). “통합교육 경험이 대학생들의 장애인 인권 의식 및 인성에 미친 영향 연구”. **통합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1-27.

김경숙·김한결·선우현(2022). “청소년의 성별·학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차이 연구”. **인문사회**. 제21권 제13호, 705-720.

김영신·박가나(2014).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85-100.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엽·황성결(2017).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자녀 간 TSL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4호. 75-97.

박봉규(2011). “인권 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91-126.

양영미·김진석(2023). “청소년 인권의식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54권 제1호. 69-90.

유문무(2013). “학교폭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Holism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105-125.

유성상·이규빈(2023).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및 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55권 제4호. 1-25.

윤황(2022). “인지 및 도덕발달에 대한 발생적 인식론을 통한 조망 -경험과학과 사변의 경계에서-”. **인간연구**. 제47권. 79-106.

이소담·신소라·엄유진(2023). 인권교육경험이 장애아동 인권침해·차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3호. 283-306.

이채식(2016).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인권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권이론과 실천**. 제3권. 53-68.

전예빈·김순규(2022).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 89-113.

정용교(2015).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현황과 극복방안”. **민족문화논총**. 제60권. 277-310.

하여진(2020).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분석: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 33-64.

한주희·조인주(2022). “청소년의 반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제13권 제1호. 2887-2898.

현안나(2016). “친인권적 부모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제35권. 187-2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https://www.nypi.re.kr에서 2024.09.25. 인출.

Ackerly, B. A. & True, J. (2010). *Doing Feminist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Gender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Aneshensel, C. S. & Sucoff, C. A.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4), 293-310. https://doi.org/10.2307/2137258

Buller, A. M. & Schulte, M. C.(2018). Aligning human rights and social norms for adolesc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6(52), 38-45. https://doi.org/10.1080/09688080.2018.1542914

Butler, C. (2008). *Human Rights Ethics: A Rational Approach*. IN: Purdue University Press.

Carter, C. & Osler, A. (2000). Human Rights, Ident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 study of school culture as experienced through classroom relationship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3), 335-356. https://doi.org/10.1080/03057640020004496

Cheung, C. K. & Lee, T. Y.(2010). Improving social competence through character educ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3(3), 255-263.

Crean, M. (2018). Affective formations of class consciousness: Care consciousness. *The Sociological Review,* 66(6). https://di.org/10.1177/0038026117751341

Donleavy, G. D. (2008). No Man's Land: Exploring the Space between Gilligan and Kohlberg. *Journal of Business Ethics,* 80(4), 807-822.

Emmert, S. (2011). Educa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 346-361.

Fields, S. A. & McNamara, J. R.(2003).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1), 61-91.

Fivush, R. & Zaman, W. (2014). Gender, subjective perspective, and autobiographical consciousness. In P. J. Bauer & R. Fivush (Eds.), *The Wiley handbook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emory*(pp.586-604). Wiley Blackwell.

Gervais, C. (2010). On their own and in their own words: Bolivian adolescent girls' empowerment through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97-217. https://doi.org/10.1080/13676261.2010.506528

Greene, M. B. (2006). Bullying in Schools: A Plea for Measure of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62(1), 63-79.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Gupta, V. P. (2011). ROLE OF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z. *The In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2(2), 363-375.

Hoge, D. R., Petrillo, G. H. & Smith, E. I. (1982). Transmission of Religious and Social Values from Parents to Teen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3), 569-580. https://doi.org/10.2307/351580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epsen, D. M., & Rodwell, J. (2010). Femal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Justice. *Gender, Work & Organization,* 19(6), 723-740.

Kennedy, K. J., & Kui-Foon, J. C. (2009). Adolescents' Attitudes to Law and Law-Related Issues; The Case of Hong Kong Students.

Citizenship, Social and Economics Education, 8(2-3), 84-98. https://doi.org/10.2304/csee.2010.8.2.84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leing (3rd ed.).* NY: The Guilford Press.

Knafo, A. & Schwartz, S. H. (2003). Parenting and adolescents' accuracy in perceiving parental values. *Child Development,* 74(2), 595-611.

Kohlberg, L. & Hersh, R. H. (1977). Mor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 theory. *Theory Into Practice,* 16(2), 53-59. https://doi.org/10.1080/00405847709542675

Kuhn, D. (1979). The Significance of Piaget's Formal Operations Stage 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161(1), 34-50. https://doi.org/10.1177/002205747916100105

Lerner, R. M. & Jovanovic, J. (2016). *Cognitive and moral development,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NY: Routledge.

Malti, T., Galarneau, E. & Peplak, J.(2021).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4), 1097-1113. https://doi.org/10.1111/jora.12639Citations: 16

Osler, Audrey & Starkey, Hugh (2006).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 review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995-2005.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24, 433-466.

Orend, B. (2002). *Human Rights: Concept and Context*. NY: Broadview Press.

Otto, L. B. & Atkinson, M. P. (1997).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68-89. https://doi.org/10.1177/0743554897121005

Sherrod, L. R. (2008). Adolescents' Perceptions of Rights as Reflected in Their Views of Citizenship. *Journal of Social Issues,* 64, 771-790.

Tasioulas, J. (2012). Human Rights, Gender, and The 'Woman Ques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40(1), 1-30.

Torney-Purta, J., Wilkenfeld, B. & Barber, C. (2008). How Adolescents in 27 Countries Understand, Support, and Practice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64(4), 857-880.

Velez, G. M. (2019). Building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Postconflict Societies: Peruvian Adolescents' Understandings of Human Righ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4(4), 438-463. https://doi.org/10.1177/0743558417722519

Ybarra, M. L. & Mitchell, K. J. (2013). Prevalence Rates of Male and Female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AMA Pediatr,* 167(12), 1125-1134.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Human Rights-Friendly Attitudes of Parents and Schools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Byongsam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human rights-friendly attitudes from parents and schools on adolescent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educa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were analyzed using response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arental attitudes and respect for students within the school, while the mediating variable is the awareness of student rights.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discriminatory behavior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was employed.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parental attitudes and respect for students at school had significantly positive 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with a significantly negative indirect effect on discrimination and a significantly positive indirect effect on the respect for disability rights. Furthermore, multi-group SEM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s on human rights awareness was more pronounced among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impact of human rights-friendly school management on human rights awareness was stronger among male students, whose awareness of human rights showed greater suppressive effects on discriminatory behaviors, along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disability rights.

Keywords : parental attitude, school administration, awareness of human rights, female adolescents, discrimination

---

* This study used the data of 「2022 Children·Adolescent Survey of Human Rights」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